

롯데, 이번엔 첨단에 창고형 할인점

신용동에 부지 8500m² 매입 건축심의 절차

구, 서류 반려…중소상인단체 “강력 저지”

지난해 이마트 입점 추진으로 한바탕 흥역을 치른 광주 북구에서 또다시 대형 할인점 입점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최근 북구 첨단 2지구 신용동에 대형 창고형 할인점을 짓기로 하고 부지 8500여m²를 사들였다. 구는 건축허가를 위해 건축계획 심의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는 롯데쇼핑이 지난 달 말 제출한 건축계획 심의 서류를 반려했다.

구의 한 관계자는 “법보다는 사회 정서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류를 반려하고 중소상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 할인점 입점 주민지와

직선거리 2km 지점인 첨단 1지구에는 롯데마트가 들어서 있어 상권 박탈을 우려하는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소상인들은 “광주에서 롯데의 영업은 공습 수준”이라며 입점 저지를 예고했다.

종소상인들은 “광주에서 롯데의 영업은 공습 수준”이라며 입점 저지를 예고했다.

구의 한 관계자는 “법보다는 사회 정서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류를 반려하고 중소상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곳의 롯데아울렛이 있는 광주는 롯데 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롯

데는 백화점,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아울렛 등 업종과 동네를 가리지 않고 지역상권을 장악해 자영업자의 도산, 폐업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롯데아울렛은 월드컵점과 수안점 두 곳으로 높은 쟁등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롯데 측은 아울렛 수완점을 3배나 확장해 2월 재개점을 준비하고 있어 지역 의류유통업의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북구 매곡동 이마트 입점 추진 중 우회입점 논란, 건축허가·취소 등 갈등이 지속돼 현재 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저축銀 대출금리

16% ‘역대 최고’

상호저축은행들이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비중을 늘린 뒷이 대출금리가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차입자의 부채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신협과 상호금융은 금융당국의 은행 가계대출 규제 이후 상대적으로 우량한 고객이 줄어들며 대출금리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2일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저축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일반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연리 16.02%다. 금리 통계를 냈던 2004년 아래 가장 높은 수치다. 저축은행의 일반대출금리는 2004년 12.00%, 2005년 10.95%, 2006년 10.84%, 2007년 10.92%, 2008년 12.23%, 2009년 12.00%, 2010년 12.76% 등으로 10~12%대를 맴돌았다.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금리는 10% 안팎이고 가계대출 금리는 20%를 유픈다. 기업대출이 줄고 가계대출이 늘면 가중평균금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구조다.

신협이나 상호금융 등 다른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대출금리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신협 일반대출금리는 7.31%, 상호금융 일반대출금리는 6.21%다. 금리를 집계한 1997년 아래 가장 낮았다.



“시간을 선물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고광후)이 출입·입학 시즌을 앞두고 사회 초년생을 위해 1층 시계매장에서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다양한 시계를 선보이고 있다. 백화점은 3~5일, 10~14일까지 20만원 이상 구매시 상품권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전남농협, 경제사업 평가 2년연속 1위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는 2011년 경제사업 업적평가 결과 농업 경제사업과 축산 경제사업에 서 각각 전국 1위를 달성해 2010년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농·축산물 공동 판매사업은 전년

시대를 열었다.

전남지역본부는 산지 공동선별 출하조직 142개소를 육성해 전년대비 250억원이 증가한 1400억원의 농산물을 공동출하했다.

시·군 연합사업단 역시 전년대비 344억원이 증가한 1053억원의 농산물을 판매해 산지 유통혁신을 통한 판매농협으로 위상을 높였다.

또한 축산물 공동판매 사업은 전년

대비 1522억원 늘어난 6314억원으로 전년대비 31.8% 성장하는 등 축산부문의 사업성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녹색한우’와 ‘자리산 순한한우’, ‘함평천지 한우’ 등 전남 한우 브랜드 매출액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기기자 song@kwangju.co.kr

‘초저가 창업!!

특전 1: 가맹비, 로열티 일체 없습니다.

특전 2: 기존시설 최대 활용, 강제적인 인테리어 비용 없음.

특전 3: 신규 시설시 초저가 시공보장.

특전 4: 신규 창업시 창업비용 대출할선

때를 놓치고 땅을 치고 후회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시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좋은 자리를 선택 하실수 있습니다.

〈광주=정현기자〉



2012년 대박 히트 사업 체인점 대모집
철판콩나물불고기

철판 생오리 불고기 | 철판 닭다리 불고기
철판 돼지 불고기 (100% 국내산)

날씨도 경기도 모두 꽁꽁 얼어붙은 이겨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우리 서민들의 따뜻한 먹거리!!

이가격에 이렇게 풍성하고 맛있는
요리가 있을수 있습니까?

- 시장 볼 필요없이 재료 공급에서 양념까지 본사에서 당일 배송합니다
- 인건비 조절감 주방장이 전혀 필요없고 일반인이나 남자도 쉽게 조리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저희 이쁜아침이 제안하는 초저가 창업 비용으로 창업 성공의 열쇠로 문을 여십시오.

메뉴

- | | |
|-----------------------------|--------|
| 철판 콩나물불고기 (국내산 돼지고기 150g) | 5,000원 |
| 철판 콩나물 오리불고기 (국내산 생오리 150g) | 6,500원 |
| 철판 콩나물 닭다리불고기 (국내산 생닭 150g) | 6,000원 |

고기류

- | | |
|------------------------|--------|
| 100국내산 생삼겹살 (1인분) 180g | 6,800원 |
| 소갈비살 (미국산 1인분) 180g | 6,800원 |
| 차돌박이 (미국산 1인분) 180g | 6,800원 |

탕류

- | | |
|---------|---------|
| 소갈비 김자탕 | 소갈비 해장국 |
| 뼈다귀 김자탕 | 뼈다귀 해장국 |
| 생오리 김자탕 | 소마리 곱탕 |

각 지역 지사 및 지사장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 전화 주세요.

이쁜아침체인사업본부 062-265-8900

- 본부장 직통 010-9885-2025
- 야간 및 공휴일 전화 친절상담 011-803-2612

오피스(북부경찰서 옆) TEL 062-264-5343 | 교대점(서방사거리) TEL 062-526-6617 | 광명점(쌍촌동 광명하이츠 앞) TEL 062-375-3881

예금 깨 생활비로…은행 수신 급감

두달 연속 하락…한달새 10조원 줄어

은행 예금 감소 규모가 글로벌 금융 위기로 한창이던 2008년 수준을 넘어섰다. 경기는 심각하게 둔화하자 예금을 깨어 생활비 등으로 충당하거나 빚을 갚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현재 롯데아울렛은 월드컵점과 수안점 두 곳으로 높은 쟁등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롯데 측은 아울렛 수완점을 3배나 확장해 2월 재개점을 준비하고 있어 지역 의류유통업의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북구 매곡동 이마트 입점 추진 중 우회입점 논란, 건축허가·취소 등 갈등이 지속돼 현재 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2009년 1월에 이어 3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에도 감소폭은 이번만큼 크지 않았다. 2008년 12월에 8168억원, 2009년 1월에 1조9000억원 각각 줄었다.

신한은행은 총수신이 5조원이나 축소됐다. LG카드 우선주 상환자금 3조7000억원이 지난달 예금에서 빠져나간 것을 고려해 수신이 1조3000억원이나 줄었다.

우리은행은 정기예금이 1조5000억원, 요구불예금이 1조30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이은행은 지난해 12월에도 총수신이 1조5000억원 가량 적어졌다.

은행은행도 지난달 총수신이 2조 4000억원 가량 줄었다. 5대 은행 중 국민은행만 유일하게 수신이 늘었다.

은행 수신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

은행 수신 감소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대출과 실질소득 축소 여파로 분석된다. 예금을 깨 생활비로 충당하거나 빚을 갚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정부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를 보면 기구소득 평균은 지난해 6.3% 늘었지만 대출액은 14.1% 급증했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무려 22.7% 늘었다.

더구나 지난해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는 고작 0.19%포인트 올라 연 4.09%에 불과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0.47%포인트 급등해 5.82%에 달한다. 예금을 깨 빚을 갚는 것이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해진 상황이다.

체부 상환용 예금 개정은 대출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지난해 매달 급증하던 가계대출이 새해 들어 크게 줄어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감소액이 무려 2조109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지역 주식거래 줄었다

거래량 3756만주

대금 2262억원 ↓

광주·전남 지역 상장사의 1월 주식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감소했다.

2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2012년 1월 광주·전남 지역 주식거래 동향’에 따르면 거래량은 5억 3087만주로 전달보다 6.61%(3756만주), 거래대금은 3조5643억원으로 전달보다 5.97%(2262억원) 각각 감소했다.

지역 투자자들이 전제 거래에서 차지한 비중은 전날과 비교해 거래량은 증가(2.54%→2.59%), 거래대금은 감소(2.08%→2.05%)했다.

거래량 상위 종목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진흥기업, 우리들생명과학, S&T모터스, 영진약품, 미래산업 등의 순이고, 코스닥시장에서 엔스피드, 미주제강, 아이넷스쿨, 동양텔레콤, 솔고비아오 등의 순이었다.

또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OCI,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한화케미칼, KODEX레버리지 등의 순이고, 코스닥시장에서 안철수연구소, 메디포스트, 아가방컴퍼니, EG, 차바이오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이태리가구 쇼핑몰

www.100424.com

(천사24닷컴)

신상품 입점 : 100~200만원대 식탁 거실TV장

1899-0240
스카이아스

홍은 수입원/직수입 → 도매가 판매
이태리가구 빌딩 400평 매장

동구 장동 58-15 장동로터리 동구청-전남여고사이